

Tongil Goup Newsletter



Tongil Group <http://www.tongilgroup.org/eng> Contact: info@tongilgroup.com Copyright © Tongil Group All Rights Reserved



True Parents' Activities

Cheon Hwa Gung Hoon Dok Hae
- January 22 by Heavenly Calendar (February 13)




Cheon Hwa Gung Hoon Dok Hae
- January 22 by Heavenly Calendar (February 13)



 True Parents' Birthday / Consolation Performance for the Korean War veterans



 The International President Hyung Jin Moon's Twitter, "lovintp"

Father's words: "Learn from the wisdom of geese that help the ones that fall behind, becoming the stepping stones for those who are in need, in order to open the path to heaven."



lovintp 문형진.이연아
 동일교 목사 -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섬기는 사람, 성령의 은혜로 덮여 있는 회개한 죄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 참부모님 억만 세 진동수행자. 천복궁(동일교 세계본부): 서울시 용산구 3가 63-379
<http://www.tongilgyo.org>

+ 팔로우

팔로워 **4,096**



팔로잉 **266**



트윗들



lovintp 문형진.이연아
 오늘 아버님의 말씀은 기러기무리의 지혜를 배워 "서로가 노력하고 격려속에 협조해서 뒤 떨어진 사람을 끌어주고 높인데 올라가는데 있어서 못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발판이 되어주며 가는 길이 하늘 길을 가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4:54 PM Feb 14th



lovintp 문형진.이연아
 천력 1월 23일은 밸런타인 데이(Saint Valentine's Day), 아침 경배 후에 형진님과 신편아기가 부모님 양위분께 초콜릿과 꽃다발을 봉정해 올렸어요. 여러분들께도 해피 밸런타인데이예요^^.
twitter.com/lovintp/status...
 4:31 PM Feb 14th

Chairman Kook-Jin Moon, 'Strong Korea?' Lecture

<2012 Board Members' Banquet, Chairman Kook-Jin Moon's Lecture>

On January 23, by the Heavenly Calendar (Feb. 14), Chairman Kook-Jin Moon was invited to attend the 2012 Board Members' Banquet held at the Tongil Building auditorium on the 8th floor around 3:00 p.m. The event was hosted by the Peace Union For South & North Korean Youth Corporation. Chairman Kook-Jin Moon later gave a lecture titled 'Strong Korea?' to the approximately 130 organizational heads in attendance.



<Chairman Kook-Jin Moon's Special 'Strong Korea?' Lecture>

On January 29, by Heavenly Calendar, Chairman Kook-Jin Moon presented the lecture, 'Strong Korea?' to the representatives from the Youth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the People's Federation fo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This event was held on the 8th floor Tongil Building auditorium at around 3:00 p.m. Approximately 160 people from the Youth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the People's Federation fo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attended this event.



2012 Workshop for the Providential Organizations

From January 22 to 23 by the Heavenly Calendar (Feb. 13-24) at the Yong Pyeong Resort's Greenpia Condo Seminar Room, approximately 20 members from providential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the <2012 Workshop for the Providential Organizations' Employees>. Through this seminar, the members from the providential organizations could share the current providential situation and develop an organizational structure centering on True Parents, strengthen the vision of the Tongil family, renew their determination to bring Cheon Il Guk to realization and to align to the common goal for 2012 through the 'Strong Korea?' lecture and Six Sigma education.



South American CARP's visit to the Tongil Foundation

On January 24, by the Heavenly Calendar (Feb. 15), 40 members from CARP-South America visited the Tongil Foundation. From 1:30 in the afternoon, they watched a video presentation on the International President and Mrs. Hyung-Jin Moon's visit to North Korea, as well as a video presentation on Tongil Group's work in 2011, followed by reports on the Tongil Foundation's current events, the World Missions Headquarters activities, as well as the current media coverage.



After a short break, the 40 members from South America welcomed Chairman Kook-Jin Moon with an enthusiastic round of applause as he arrived at the 13th floor auditorium. They further expressed their gratitude by singing two songs together.



Afterwards, President Kim Heung Tae gave a report to Chairman Kook-Jin Moon. The chairman then gave a speech towards the end. Chairman Kook-Jin Moon emphasized that the reason why the Abel nations must become strong is to protect the peace and realize the Providence. The event was concluded successfully.



March edition of Chosun Monthly: Why did Tongilgyo come out to Gwang Hwa Mun in Seoul?

月刊朝鮮 3 2012

http://monthly.chosun.com

ABC

‘사이코서저리’의 도전과 위험
인간, 뇌를 바꾸다 강박·충동성 정신분열 환자 8명 수술 성공

전문가 증언예측 “대구·경북 빼고 새누리당 어렵다는 말뿐”
 홍선 관심지역 르포 **金富謙은 대구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

북한 주민 6명과의 통화기록 **협정 취재**
 “나이도 어린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나”

金銀星 前 국가정보원 차장 증언
 6·15 남북 頂上회담 관련
 “金正日, 돈 털 받았다고 金大中 訪北 연기시켜”

韓中관계 미래 결정할 淸史工程
 조선은 淸의 屬國으로 쓸 것인가 外國으로 쓸 것인가?

특집 **지금 SNS에선...**
 한국 환경운동의 잘못된 진화

‘나경원 1억원 피부과’ 닥터킴스클리닉 김선민 원장 인터뷰
 털어놓고 하는 이야기 **許和平 前 대통령 정무수석(上)** 국민검사 심재륜의 수사일지 **조폭과의 전쟁**

한국의 여배우를 만나다 ② 김지미 “어린 남자, 나이 든 남자 다 살아 봤지만 남자는 어린애” **前 북한축구대표팀 감독의 딸과 아내가 탈북한 이유**

다독인수 - 감사원의 부산저축은행 감사 문건
 통일교가 광화문에서 나야 이유
 일본 新黨 推選의 두 주역
 추수현회 지원 횡령 사태 전말
 인간의 삶 바꿀 10가지 미래약

ChosunMics
 조선뉴스프레스
 9 717228 219700
 ISSN 1228-2197

통일교는 왜 서울 광화문으로 나왔을까

지난 1월 24일 광화문에서 통일교 관계자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퍼레이드가 열렸다.

- 문선명 총재 부인 한학자씨 古稱 맞아 '양자'로... 광화문 퍼레이드 펼쳐
- 김정일 조문 등 북한과도 긴밀한 관계 유지
- 의환위기에 위기 맞았던 통일교, 2011년 새 계열사 독자 기록
- 2013년 '기원절' 앞두고 설정체제 확립과 이미지 개선, 체재정비 나서

羅世珍 기자 skwon@chosun.com

지난 1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이색적인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세종로 한 차선을 통해

한 채 열린 이날 퍼레이드에는 고려대 등 필두로 세계 각국의 국기들은 200여 명의 기수단, 라나타 민족의상을 한 외



문선명-한학자 부부가 천복축제 행사에서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있다.

한학자씨로 옮겨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광화문 퍼레이드의 마지막은 문선명-한학자 부부의 동선상(等身像)을 실은 퍼레이드카가 장식됐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를 보면서 통일교의 교주가 '문선명 1인' 이하

2012년은 문선명 총재 부인의 고회

이런 천복축제가 어느때와 달리 공개적으로 열린 것은 문선명 총재의 부인 한학자 여사의 고회(70세)를 기념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이번 행사의 명칭은 '천지인 삼부모님 83성년 금혼 및 고회 경배식'. 문선명 총재의 93세 생일과 문선명-한학자 부부의 금혼식, 한학자씨의 고회를 함께 축하한다는 뜻이다.

특히 한학자씨의 고회를 맞아 공개적인 행사가 열렸다는 점에서 통일교의 실질적인 중심이 고령의 문 총재에게서

년 '문선명 부부'임을 새겨둔 인식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천복축제의 첫날인 1월 23일 청평에서 열린 천복축제 개최식에서는 식전영상으로 '참어머님(한학자) 생애노정' 영상이 1시간에 걸쳐 상영되기도 했다. '참어머님' 단독 영상이 통일교 최대 행사의 식전영상으로 비중있게 선보였다는 것은 한학자씨가 통일교의 실질적인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통일교 관계자들은 "통일교는 지속적인 모임을 함께 모셔 왔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학자씨가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창시자 문선명 총재의 나이가 이미 90세를 넘어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의 최대 현안은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의 건강이 아닐 수 없다. 문 총재는 1920년생으로 올해 93세다. 후

계구도가 관심을 끄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통일교 관계자들은 "문 총재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문 총재에 대해 2010년 방광암 발병설이 있었지만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 총재의 넷째 아들 문국진 통일교 총회장은 "아버지는 올해 들어서도 어느 한 곳에 머무는 일 없이 미주와 유럽 등 전세계를 돌며 하루에 6~7시간씩 설교와 말씀을 하신다"며 "묵은 연세가 90대인 만큼 젊은 사람 같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 총재는 이번 천복축제 기간에도 여느때와 같이 활발한 활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월 23일 청평에서 열린 천복축제 개최식에는 문선명-한학자 부부가 참석했고 예배와 기도, 케이크 커팅과 축가, 모범교인 시상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이날 문 총재는 "대한민국이 여러분 의의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기



광화문 거리에 등장한 퍼레이드카에 문선명-한학자 부부의 상이 실려 있다.

에는 1월 22~23일에 걸쳐 열렸다.

천복축제 행사는 보통 경기도 평택의 통일교회(천정궁)와 서울 용산 통일교회(천복궁), 여수리조트(통일그늘 소유) 등 통일교회 또는 통일교와 관련된 곳에서 개최되는데, 2012

년에는 유독 서울 한복판으로 나선 것이다. 광화문 퍼레이드에 고령(93세)인 문선명 총재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들인 문형진 통일교 세계회장과 문국진 통일교 총회장이 행렬에 참가했고 문선명-한학자 부부의 상(像)을 태운 퍼레이드카가 세종로 한복판을 행진했다.

이 행사는 통일교가 주최한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발전의 평화의 천복 퍼레이드'였다. 퍼레이드카에는 '죽성만(聖蹟)'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통일교의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 부부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다. 통일교는 매년 하나님의날(음력 1월 1일부터 문선명 총재의 생일(음력 1월 6일) 주간)에 맞춰 '천복(天福)축제'를 개최한다. 천복축제는 통일교 최대 행사로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뜻이다. 2012년

년에는 유독 서울 한복판으로 나선 것이다.

광화문 퍼레이드에 고령(93세)인 문선명 총재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들인 문형진 통일교 세계회장과 문국진 통일교 총회장이 행렬에 참가했고 문선명-한학자 부부의 상(像)을 태운 퍼레이드카가 세종로 한복판을 행진했다.

사실 통일교는 기독교 등 타 종교를 의식해 종교행사를 외부에 크게 알리지 않는 편이다. 그런데 이번 천복축제를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광화문에서 대대적으로 연 이유는 무엇일까.

통일교는 이번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서울 시내 20여 개의 전광판 광고를 집행했고, 1월 한달간 라디오 광고도 400여 차례에 걸쳐 내보냈으며 일간지와 무지개 등에 지면광고도 집행했다. 문형진 통일교 세계회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천복축제를 통해 문선명 선생의 평

하고 새로운 새출발을 결의해 달라"며 "결의를 다져 전진에 전진출 다잡하자"고 참가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문 총재는 이어 1월 23일까지 애송일(통일교의 기념일) 행사, 천복식, 무지개 관람 등에 모두 참가하며 천복축제 내내 행사장을 찾았다.

북한과도 긴밀한 관계 유지

통일교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이 행사뿐만이 아니다. 최근 통일교는 대북 민간 물자로 주목받기도 했다. 김정일 장례식에 이회호 여사와 한경은 회장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조문한 남측 인사가 바로 통일교 세계회장인 문형진 회장 일행이었던 것. 문형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24일 평화자동차 박상권 사장, 더 워싱턴타임스 주동은 회장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육로로 평양을 방문했다. 이는 일행은 김정일 장례식장에서 김정일을 만나 조의를 표했고, 북측이 조문단을 위해 마련한 만찬을 가진 후 북한에 머무는 등 다들 아쉬웠다.

통일교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문선명 총재가 1991년 12월 북한을 방문해 당시



한학자 부부가 문선명 총재의 일곱째 아들 문원진씨(세신)가 기증한 장례식을 열고 있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문선명 총재에게 생일선물로 보낸 금강산 만년화. (동일그룹 제공)

주석이던 김일성과 회담을 가진 후 통일교는 현대그룹보다 먼저 금강산관광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왔으며, 현재 북한에 평화자동차와 보통강호널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북한에 밀가루 5000톤 보내기도 했다. 현재 통일교의 책임자인 문선명 회장이 12월에만 두 번 평양을 방문하는 등 통일교 인사들의 방문은 공공연한 일이다.

한편 통일교는 천복축제 기간을 맞아 북한에서 문선명 총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보내 온 금강산 만년화를 언론에 공개, 북한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만년화만 조개껍데기나 보석을 갈개 부순 뒤 붙여서 제작한 그림, 보철 상태가 만년여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리는 이름이다. 북한과 대남 공작 라인

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매년 문선명 총재의 생일이면 선물을 보내 오는데, 2010년 문 총재의 구순(九旬)에는 90년 묵은 산삼을 보내 오기도 했다.

남북을 오가며 사업을 관치면서 문 총재에게 특속의 선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온 평화자동차 박상권 사장은 "총재인이나 사업가가 남북간 민간 외교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며 "통일되는 그날까지 남북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질’ 앞두고 안팎 정비하는 통일교

통일교가 이처럼 ‘양지’로 나서는 이유는 통일교의 ‘새 세상이 열리는 날’

이 열까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통일교는 2013년 1월 13일은 ‘기업질’로 명명하고 이날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기점으로 보고 있다. 지상천국이 열리는 날이라는 것이



통일교원 수/기부금액

일부 종교학자들은 이 기원절을 통일교 2세 시대의 시작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통일교의 현재 추재자는 문 총재의 일곱째 아들인 문형진 통일교 세계회장으로 알려졌다. 나이(33세)가 젊고 세계회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로서의 입지가 아직 탄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통일교가 기원절 전까지 ‘엄정(嚴政)’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이미지 개선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종교학자들의 분석이다.

이유가 어쨌건 통일교는 기원절을 목전에 두고 교회 안팎을 재정비하는 데 여념이 없다. 통일교는 최근 3년간 전국 61개교회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했다. 또 통일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통일그룹이 2011년 말 기준으로 전 계열사가 흑자를 달성하면서 새로운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통일교 재단과 미국 UCI가 맞붙은 여의도 파크 원 관련 소송도 음해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도 김정일 사후 김정은 정권과 관계유지를 위해 통일교 관계자들이 2월 중순 다시 방북할 예정이다.

통일그룹 관계자는 “통일교가 더 이상 ‘숨어 있는 종교’가 아니라 이른바 종교로 자리매김해 내년 기원절을 삼배히 맞으려 하는 것이 교인들의 바람”이라며 “통일그룹이 전 계열사 흑자를 내는 등 자경도 더욱 탄탄해졌고 교회 재정비 사업으로 신도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진 만큼 통일교가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선명 총재를 ‘메시아’로 믿고 섬겨 온 통일교는 기독교인들로부터 이단으로 몰리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국내에서 교세를 확장하고 자산을 축적했다. 통일교는 문선명 총재 사후에도 그 교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 열화하는 문선명 총재의 가족들이 쥐고 있을 것이다.

인터뷰 **문** 새 계열사 흑자 달성한 통일그룹 문국진 회장

“기업이든 종교든 투명해야”

문 선명 총재의 넷째 아들인 문국진(42세)씨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이하 통일교 재단) 이사장 겸 통일그룹 회장직을 맡고 있다. 재단은 통일교의 재정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조직으로, 재단 산하에 통일그룹이 있다. 통일그룹은 용평리조트, 일성레양산업, 일신회계, 일화, JC 통일스포츠(성남일화전바둑구단), 평농, 평일기획, TIC, 선원건설, 새제일보, 세일로, 아시아양양 13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재단은 이밖에 유니버설발레단, 리틀엔젤스, 선문대학 등 문화·교육사업도 펼치고 있다.

통일그룹은 1988년 외환위기 당시 통일중공업과 한국티타늄 등 주요 계열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위기에 처했고, 2000년대 초반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2005년 초 문선명 총재는 미국에서 하버드대(MIT) 경제학과와 마리아메리 MBA를 졸업하고 총기회사를 성공리에 운영중이던 넷째 아들을 불러

들었다. 문국진 회장은 구조조정에 착수, 30여개의 계열사를 현재 13개로 줄이고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조직개편으로 대부분의 계열사를 흑자로 전환시켰다. 2011년에는 세계일보까지 흑자로 전환, 취임 7년 만에 전 계열사 영업 흑자를 달성했다.

레저·제조·엔터 등 다양한 분야 사업

서울 마포 통일재단 빌딩에서 만난 문국진 회장은 ‘실용주의 비즈니스맨’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김부실은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데도 격식을 따지지 않았다. 그는 무엇이든 ‘투명한’ 것을 가장 중요시한다며 기업이든 종교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 신조라고 했다.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과 통일그룹은 어떤 조직입니까, “재단과 그룹은 통일교회를 정경적



나라 한국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통일교는 한국에 뿌리를 둔 세계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통일교가 성장하려면 한국이 정치·사회·문화·군사 면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은 더 강해져야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국이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전환적 사업 계획은 아버지가 세우”

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창시자의 비전을 수행하면서 교회를 지원하는 게 원래 목적입니다. 현재 재단과 그룹이 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교회의 관련된 것들입니다.”

— 통일그룹 자산의 상당부분은 용평과 여수 둘 리조트사업인데, “리조트사업은 많은 교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도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인화 등 제조업과 스포츠 관련 사업도 소비자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국과 미국에서 별기와 총기 등 방위산업이나 무기사업도 하고 있는데, 평화를 주장하는 교리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평화의 역사가 아실니까, 평화는 이 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그랬고요. 미·소 냉전시대에 무기산업이 발전했지만 평화는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

니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재단의 경영상태가 크게 호전됐습니다. “사실 그 전엔 계속 미국에 있었고 한국의 재단과 그룹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몰랐습니다. 2005년 초 이사장이 되면 서 재단의 모든 스태프와 직원을 직접 만나 보니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전문가들을 데려 영입해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직·소·마 등 교육과 컨설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고, 사람을 새로 뽑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 통일그룹의 사업전략은 누가 결정합니까, 용평과 여수 등은 지금 큰 호재를 맞고 있습니까, “전략적인 전략은 아버지가 세우고, 나는 그에 따른 뿐입니다. 용평과 여수 사업은 아버지가 결정하여 시작한 것이고, 지금도 많은 일을 재단에서 처리하지만 큰 일은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 작년 말 모든 계열사가 흑자로 전환했다던데,

"사실 때는 짧은 구조조정도 있었지만, 미국말 급증하기 이후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리즈트나 케조업, 언론 등 우리가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개선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세관에서 '동일교는 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자산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어디와 비교해서 돈이 많다는 것만 지 잘 모르겠어요. 가톨릭이나 불교에 비하면 적은 게 당연합니다. 물론 가난 하지는 않고 작은 신종교들보다는 많겠지요. 해외 동일교의 자산은 그 나라 재단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의 재산은 아닙니다."

"파크원 사태는 교인들에게 큰 아픔"

-재단은 공사중인 의뢰도 파크원에 대해 2010년 10월 소송을 걸어 공사가 1년이 넘게 중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45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도 받았지요.《월간조선》 2011년 2월호 참고.

"파크원 사건은 교인들에게는 큰 아픔입니다. 그 공사의 시작을 담당했던 정본인(곽정환 前 재단 이사장)은 동일교 요직을 장악하여 아버지 조근희에게서 조근희

사범이었는데... 또 법원에서 아직 1심 결과가 나왔을 뿐이고, 진실이 밝혀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곽정환씨의 사위인 형(문헌전 美 UCI 회장)이 UCI 정관을 변경하며 동일교와 UCI의 연원을 끊었는데 동일교에 선 이를 어떻게 봅니까.

"UCI는 원래 정관상 우리 재단지인 미국에서 동일교회 활동을 돕기 위해 세워진 재단입니다. UCI 자산은 우리 신도들의 헌금으로 이뤄진 것이고, UCI는 신도들의 것입니다. 이를 알지 않기에 가능한 할 모든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보통 기업이라면 재산 일부만 포기할 수도 있지만, 신도들의 재산입니다.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크원 소송 이후 형 문헌전씨와 만

난 적이 있습니까. 의견차가 많다고 봅니까.

"연락을 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사실 형과 저는 미국에서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UCI를 걱정할 필요가 장악하고 있는 만큼 절대로 쉽게 행동하지 않겠지요. 아버지는 이미 광범한 일가에게 UCI에서 물러나라고 지시했고, 지금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UCI도 문 총재의 아들이 속해 있고 문 총재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 만큼 똑똑일교의 이름을 걸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나름대로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소송이 길어지며 '황제의 난', '형제의 난' 등으로 언론에 알려지고 있고, 서로 주장이 다르겠지만 이미 저 손상이 상당히 클 텐데요.

"문제는 지금 UCI를 장악하고 있는 광범한 일가가 가져가려는 것은 UCI의 자산권이라는 것입니다. UCI는 원래 동일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그 정권은 삭제하고 신도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산만 가져가겠다는 것은 동의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국진 회장은 시장열린 지금의 자신은 '아버지'와 '동일교 신도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가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묻자 이렇게 말했다. "저는 부모님과 신도들로부터 동일교의 자산을 보호하라는 강한 임박을 받고 있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어 늘 마음이 무겁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 내야 해요."

WALKERHILL
세탁은 그랜드 워커힐이 제안하는

달콤한 화이트데이 프로모션 & 패키지

세탁은 그랜드 워커힐은 특별한 화이트데이를 위해 세련된 디오의 품에 대담한 화이트데이 패키지를 마련했다. 모든 객실에 화이트데이 케이크와 과일 샐러드를 제공하며, 1박 2일 숙박객에게는 세련된 화이트데이 패키지(2011.02.14~02.15)를 제공한다. 객실마다 화이트데이 케이크와 과일 샐러드를 제공한다. 객실마다 화이트데이 케이크와 과일 샐러드를 제공한다.

호텔 예약 시 화이트데이 패키지 예약 시는 고객에게 화이트데이 케이크와 과일 샐러드를 제공한다. 객실마다 화이트데이 케이크와 과일 샐러드를 제공한다.

예약문의: 02) 455-5600 (세탁은 제안) / 02) 455-5600 (예약은 제안)

March edition of Chosun Monthly: Interview with Park Sang Gwon, the CEO of Pyunghwa Motors

인터뷰 金正日 訪北 조문한 朴商權 평화자동차 사장

"김정은, 조문 때 '감사합니다' 외엔 말 안 해"

- 北에서 먼저 이희호·현정은 육로 선택 가능성 귀찮... 반대하던 동일부 수차례 설득해 MDL 넘어 入北
- 남북관계는 항상 50대 50. 현·전 정권 경험 모두 실려야
- 총 193차례 訪北... 김정일 사망 전날(12월 16일)까지 평양 체류

金 正 友 010-9488-7471 gpa@chosun.com
최대 책임자 崔 多 恩 010-9488-7471

은(李貞淑)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허가했다. 박지민(朴智敏) 의원과 노부영(盧武鉉)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 등은 조문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여사와 현 회장 일행은 12월 26일 오전 육로를 통해 평북길에 올라 금수산기념공원의 김정일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한 후 다음 날 귀환했다. 아들이 김정원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북한 TV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됐지만, "별도 만남이나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고 전해져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 달여 후, 평양한 곳에서 논란이 계속됐다. 미국 국제 한인 3명이 이희호 여사 일행보다 이틀 앞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방북 조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들 3명은 문영진 통일교 세계회장, 박상권(朴商權) 평화자동차 사장, 워싱턴타임스 주동문 회장으로, 방북 당시 중국을 통해 입북(入北)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이 "국인 체제의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간 차원의 조문을 일괄 불허한 것과 이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비밀리에 도운 사실이 밝혀져 다시 논란이 일었고, 동일부는 "이들 3명은 모두 미국 국적자로서 중국을 통해서라도 북한을 방문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만큼 육로를 통한 방북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내가 제일 먼저 가야겠다" 생각

지난 2월 10일, 서울 신사동 평화자동차 본사 김부실에서 방북 일행 중 한 명인 박상권 사장을 만났다. 육로 방북 논란이 있은 후 첫 언론 인터뷰였다. 그는 "긴박한 시점에 엉뚱한 방향으로 방북 투쟁이 공개돼 상당히 곤혹스러웠다"며 "동일부도 처음엔 불허했지만, 우리 측의 간절한 요구 끝에 이뤄진 사안이니 큰 오해가 없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희호 여사, 현정은 회장보다 이틀 빨리 입북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김정일 사망 소식이 전해진 시각이 한국은 오후, 미국은 밤 10시였습니다. 당시 뉴욕에 있었는데, TV 전 채널에서 긴급속보로 보도했습니다. 뉴스를 보자마자 두각정 '내가 제일 먼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북측에 가겠다는 의사를 타진했고, 23일에 동보통을 받았습니다. 이미 보도된 대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경유해 갈 수도 있었

朴商權

- 1971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 한국 True World Group 회장, 통일부 평화교류협력지원위원회 위원, 세계경제포럼(WEF) 부회장
- 1997년 평화자동차 사도, 금강산국제호텔 사장, 통일부 통일교류협력지원위원회 위원, 대한항공 회장
- 2000년 평화자동차 사도, 금강산국제호텔 사장, 통일부 통일교류협력지원위원회 위원



평일시에 자리한 평화자동차 건물(90)과 전시관 차량. (사진=평화자동차 제공)

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남한을 통한 육로 방북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평화자동차 사훈(訓語)이 ‘남다른 발상, 남 먼저 행동’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대북(對北)사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육로 방북 때문에 다시 논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미국 국적이라 남한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통보가 올 때 이희호 여사

와 현정은 회장이 육로로 온 것 같다는 얘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미 개성에 자주 다녀온 경험이 있어 굳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갈 필요가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통일부에선 바로 허가했습니다.

“북측에서 길을 열어준 다니 통과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제기된 만담과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어차피 이희호 여사 밀행도 계획에 잡혔으니 시간 절약을 위해 수차례 더 요구했습니다. 사실 외국인은 판문점을 통해

기면 안 된다는 법도 없지 않아요.”

“김정은은 듣기만 했다”

“정부에서 이를 알리지 않았는데, ‘숨긴 게 아니라 브리핑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제대로 물었다면 정확한 답이 나왔을 텐데, 3국으로 갔느냐 물으니 ‘그런 것 같다’는 답이 돌아온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9명이 아니라 문형진 회장의 비서관 조항재 총 4명입니다. 다른 수행원은 없었습니다.”

“분할소 안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모두 훌쩍이거나 소리치며 우는 분위기가었습니다. 26일 당시 외국에서는 조문객 100여 명이 한겨레에 모였습니다. 일본 조총련을 비롯해 중국과 유럽 등지에서 온 단체들이었습니다.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은 우리 바로 앞에서 조문했습니다.”

“김정은은 처음 만났어요.

“처음입니다. 사진대로 김일성(金日成) 주석을 많이 닮았더군요. 성형술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아버지처럼 빼어난 겁니다. 북한을 대할 땐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좋습니다. 굳이 얼굴 생김새까지 왜곡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사실 대화가 아니라 혼자 독백했습니다. 미리 노트를 준비해 ‘강성대국을 맞아 사업을 잘해 보게’는 얘기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대북 사업가로서 할 수 있는 한 얘기입니다. 김정은은 계속 고개만 끄덕이고 마

지막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김정은 이미 결혼한 듯”

“보안이 까다롭다거나 특별한 주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하는 검색 정도였고, 주의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주의사항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상감집에서 혼사 얘기한다’는 속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사 얘기만 안 하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누가 거기서 핵이나 금강산 얘기 하겠습니까.”

“영결식 날 김정은과 함께 영구차를 호위한 7인이 주목을 받았습니까. 그중 따로 만난 사람은 없었나요.

“(김정일 사망) 이전엔 몇 번 만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29일 북한관에서 외국 조문객을 위한 김정은 주위 호위대가 있었습니까. 그때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이 나와 연설문을 읽었습니다.

당신에게도 1:1 건강 컨설턴트가 있습니까?

70년의 연구, 200여가지의 다양한 제품, 전세계인의 비티민, GNC 매장에서는 건강 전문 컨설턴트가 한 분 한 분 건강을 맞춰드립니다.

세계인의 맞춤 건강 전문가, GNC

GNC Live Well | 1588-0000 (02-600-0077) | www.gnc.com.kr | Dongwon | 1588-0000

김정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뒤에 선 여인은 처음엔 ‘김정은의 친여동생인 김여정 추정’으로 보도됐다가 후에 ‘김여정 확실’로 바뀌었습니다.

“김여정이 확실합니다. 북한 측에도 직접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TV에 밝힌 장면이 방영되면 중도 한 명의 젊은 여성이 카메라에 포착돼 김정은의 부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보진 못했고 얘기가 들었습니다. 사실 분향쇼엔 꽤 많은 여성이 근무 중이었고, 다들 젊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매체를 통해 김정은이 결혼했다는 증언이 보도됐는데, ‘정확히 설명할 순 없지만, 이미 결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후손 문제도 있으니, 아버지(김정일)가 시키지 않았을까 합니다.”

“귀환은 어느 루트로 했습니까.
“일본 배와 같은 경로로 넘어왔습니다.”

술주정 사망 하루 전까지 평양 체류

“김정은은 사망 전 만난 적이 없었나요.

“바로 있습니다. 행사를 참석하면 밀리시 봤을 뿐입니다.”

“박 사장은 18여 년 동안 총 193차례

북한에 다녀온 대북사업가다. 인터뷰를 마치고 지난 2월 14일 또 입북했으니 194번째다. 192번째 방문 때는 김정일 사망일 하루 전인 12월 16일까지 평양에 머물렀다. 16일 아침 북한 매체에 박 사장 일행과 김영남 위원장의 기념사진이 김정일의 ‘마지막 현지지도’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만큼 북한의 속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드물다.

그가 경영하는 평화자동차는 작년 한 해 1873대의 자동차를 북한에서 팔았다. 평화항공여행사와 평양보통강호텔도 함께 운영한다. 자유롭게 북한에 가기 위해 2003년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이념적 쟁점을 떠나 일단 사업하는 입장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설명할 수밖에 없다”며 “이슈가 일어날 때마다 남·북한 양측에 곤란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메스컴에서 북한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항상 끝에 학자가 등장해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가끔 실제로 본 것과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접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고려대 북한학과 석사 과정을 마칩니다. 박사까지 하면 메스컴에서 ‘사업가’가 아닌 ‘전문가’로 대우해 줄 것 아닐까. 그만큼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200차례 가까이 북한에 다녀왔는데, 대부분 평양에 체류했다고 들었습니다. 평양만 보고 북한 전체를 이야기할 순 없지 않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북한에 대해 공부하고 내린 결론이 ‘50% 헛학’입니다. 누구도 북한에 대해 100% 말할 수 없습니다. 평양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체로 확산해서도 안 되지만, 일부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전체로 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일단 평양이 굵직하고 배급이 나온다고 하면 아직 그쪽 기준으로 ‘잘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 탈북자로부터 최근 평양에서도 물이 부족해 분수대 물을 떠먹고, 아파트에선 분뇨를 봉지에 싸서 내다버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가서 본 상황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일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전체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평양은 18년 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 정보는 어느 지방에서 나온 소스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윤이상 유족, 평양 집 반납하면 오해 풀릴 것”

“정치범수용소, 종교 탄압, 탈북자 송환 등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지체됩니다.

“아니 맨 끝쪽에 연기 날까,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생은 탈북자들이 한국과 미국 등에서 그런 증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만,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그 정도로 약한 정권이라면 수차례 탈북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살려두겠습니까. 어떤 탈북자는 5-6번 잡혔다가 반북했다고 하던데, 그게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인권을 더 봐주시겠습니까. 인권문제만 따로 볼 게 아니라, 남북 평화통일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나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이를 좀 더 성숙한 입장에서 지름을 선택하고 좋은 길로 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져

열 다섯 살 아들과 마흔 일곱 남편의 건강이 같을 수 있을까?

70여년의 비티민, GNC 매장에서는 200여가지의 다양한 제품으로 건강 전문 컨설턴트가 한 분 한 분 건강을 맞춰드립니다.

세계인의 맞춤 건강 전문가, GNC

GNC Live Well | 1588-0000 (02-600-0077) | www.gnc.com.kr | Dongwon | 1588-0000

야 할 덕목입니다.”
 -북한 휴대전화 사업자 오라스콤 (Orascom)의 본사가 있는 이집트가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등이 확산한 시위로 결국 정권이 붕괴됐습니다. 게다가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위리스(Sawiris) 회장이 무바라크 퇴권에 적극적이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혹자는 북한에서 일어날 일이 이집트에서 먼저 보인 것이라고 합니다.

“오라스콤은 북한에서 휴대전화를 약 100만 대 팔았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성공입니다. 경제적 영향에 대해선 따로 할 말이 없지만, 이집트도 원래 독재였다고 하니까 그런 곳에서 쌓은 경험이 대북사업에도 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단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북한이라고 무조건 정치적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기업가 정신으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 휴대전화 보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900만 대짜 전화 분포가 잘 갖춰져야 예상합니다. 평양 기보면 전화가 든 사람 절반 정도입니다. 얼마 전엔 이발소까지 적도 정반했더라고요.”

-작곡가 윤이삭(尹伊蓆)의 부인 이수자(李壽子)씨와 딸 윤정(尹正)씨가 김일성이 직접 선정한 평양의 고급주류과 강남 풍영의 별장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북한을 왕래한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남 일 같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일단 누구든 북을 왕래하는 사람이라면 경제적 도움은 받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나도 요구만 하면 북에서 짐 정도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호택을 운영하니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 지금까지 대북사업을 하면서 따로 환 돈 혜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나라에 가서 그러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택을) 빨리 반납하면 오히려 풀릴 것입니다.”

‘순까지 통일운동’

-북한에 가면 주로 어떤 사람들과 만나 대화합니까.

“주로 우리를 담당하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담당자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간관계를 무엇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자주 새로운 사람을 만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위급이 될 수도 있고, 실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하면 서로 오해가 풀립니다. ‘순까지 통일운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손이 다른 손을 감싸듯 흡수 통일이나 무력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손이 서로 맞잡는 모양새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대화한 학위 논문

도 이 내용으로 썼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데, 함께 마시는 경우가 있나요.

“전혀,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십니다. 술 마시는 사람은 술을 마셔야 대화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야 멘정신에도 제대로 된 대화가 가능합니다. 북한에서 ‘술 안 먹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예전 인터뷰에선 MB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따로 논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현 정권과 북한이 좋은 관계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친인척·연방도 사건이 안 터졌을까요 아마도 다른 사건으로 곤혹을 치렀을 것입니다. 남북 관계는 항상 50대 50입니다. 현 정권은 현 정권대로, 과거 정권은 과거 정권대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양쪽 모두 경향에 왔으니 좋은 점만 따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북한 레짐체인지(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봅니다.

“급격한 북한 정권붕괴는 미국, 중국,



평양의 한 기념관 앞에서 선 남북 조문인 일행.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박성권 사장, 세 번째가 문형진 총장이고 세계통일이다. (사진=원화지중화 제공)

일본, 러시아, 남한 모두 원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주요국들이 레짐체인지를 원했다면 벌써 사건이 났겠지요. 같은 맥락입니다.”

-혹자는 “레짐체인지를 안 하면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 모두가 행복하다. 단, 북한 주민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회생을 감수하더라도 북한 주민을 해방하기 위해선 결국 레짐체인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봅니다.

“결국 50% 철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레짐체인지가 이뤄지면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레짐체인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통일 없이 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초국적인 대화 방법을 지향하자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지 않았어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순까지 이 문입니다.”

Daily Pilot, Little Angels say thank you (Coverage on the Little Angels' performance in America)

Little Angels say thank you

South Korean troupe of singing, dancing children pays tributes to Korean War vets in Costa Mesa's Segerstrom Hall.

Comments 0 | Share 6 | Tweet 0 | 8



The Little Angels perform a traditional drum dance. (Lee Myung Chun / February 10, 2012)

RELATED



PHOTO:

TOPICS

- International Military Interventions
- Wars and Interventions
- Korean War (1950-1953)

See more topics >

Ads by Google

By Imran Vittachi
 February 18, 2012 | 8:40 p.m.

The Little Angels Children's Folk Ballet of Korea are the South Korean people's roving goodwill ambassadors.

On Wednesday night, before a sold-out Segerstrom Hall in Costa Mesa, the 30 members of the troupe's present-day generation of child performers brought their message of peace to Orange County, delighting their audience with a performance that featured a repertoire of Korean folk dances.

During the two-hour show, the children — mostly girls ranging from 9 to 15 years old — changed in and out of an array of brilliantly colored costumes. Among other moves, they spun on the stage like tops or folded and unfolded themselves into a collective flower. They performed a series of 10 harvest time and festive dances from their country, with names like “Flower Crown,” “Fan” and “Mask.”

Incredible speaker line up! Amazing outreach locations!
www.mts.wufoc.com

They were here on behalf of their country to say thank you to the American people and other nations within the U.N. system that intervened militarily during the 1950-53 Korean War against the communist forces.

In a videotaped message screened for the audience, Lee Myung-bak,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veyed his country's gratitude and appreciation. South Korea's consul general in Los Angeles also made some remarks on stage.

“We are very appreciative of their participation — they saved our country,” said Kenneth Han, a retired UC Irvine librarian and Korean American who lives in Costa Mesa, referring to Korean War veterans.

The Little Angels were making a one-night stop in O.C. as part of a world tour that began in 2010 to commemorate the war's 60th anniversary. They are touring the 16 U.N. member states that sent troops to the war, as well as five others that sent medical units then to the Korean Peninsula.

“We owe a debt of gratitude, a debt of blood that we can never fully repay,” Bo Hi Pak, the 82-year-old chairman of the Korean Cultural Foundation, which oversees the Little Angels, told the audience.

Irvine Mayor Sukhee Kang and Irvine Councilman Steven Choi were in the crowd.

Kang took to the stage to express his own words of appreciation as a Korean American.

“Their service and sacrifice will never be forgotten by the people of Korea...,” Kang said of the rows of war veterans seated at the front of the hall. “Tonight, we salute you with [our] deepest gratitude.”

The Little Angels also are marking their 50th anniversary as goodwill ambassadors. Although the faces of the children have changed over the years, Pak, himself a Korean War vet, has overseen the Little Angels since their beginning.

The troupe was founded in 1962 by the Rev. Sun Myung Moon, who also founded the Unification Church, the worldwide sect likened by some to be a cult. Moon, 92, also founded the Universal Peace Federation, a group promoting world peace that also helped organize the event.

The Korean Cultural Foundation sponsored the event. Pak also is a prominent figure in the Unification Church movement.

Over the decades, Little Angels troupes have performed in front of American presidents, including Lyndon Johnson and Richard Nixon, and European royalty.

The troupe's local appearance was not part of the Segerstrom Center for the Arts' official program.

The audience was made up of Korean War veterans — American and Korean vets alike — Korean Americans and so-called “Moomes,” Moon's followers.

Despite its solemnity, the evening was sprinkled with humorous moments, such as when the emcee, through a slip of the tongue, introduced Kang onto the stage as the “mayor of Irvine, Korea.”

Kang quipped back: “We now have a new city in a new country.”

인류화합 위한 평화축구 대제전 2012 피스컵 첫발 디뎠다

조직위, 수원시·KBSN과 협약식 가져



영태권 수원시장, 박상권 피스컵조직위원장, 문창석 KBS N 부사장(왼쪽부터)이 22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2012 피스컵 수원 국제평화축구대회 협약식'에서 사인을 하고 있다. 수원=김영록 기자

국제평화 축구대회의 새 장을 열고 인류평화의 대제전으로 자리 잡은 '2012 피스컵 수원'이 대외 출범을 알리는 일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피스컵 조직위원회는 22일 수원시청에서 박상권 대회조직위원장과 영태권 수원시장, 문창석 KBSN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 피스컵 수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2012 피스컵 수원'은 오는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됨을 공식 선언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성남 일화FC 박규남 단장과 신태웅 감독을 비롯해, 대회 관계자 학

정민 독의 벤데스리가 캄부르크의 니콜라스 피고린 마케당이사와 잉글랜드 크리미어리그 선덜랜드의 리스 플러 사무장 등이 구단을 대표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총 상금 2500만여원을 놓고 한국의 성남, 손흥민이 속한 캄부르크, 지방권이 취약중인 선덜랜드 등의 열기가 화려했던 이번 '2012 피스컵 수원'은 앞으로 17개의 클럽들이 더 출전해 총 4개팀이 4일전 도나민트로 자웅을 가린다. 남은 1개 출전팀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한국 선수기 속한 거의 모든 클럽과 접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도 좋은 팀과 접촉 중이 다. 박지성이 속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만

국 선수가 속한 모든 팀은 초청대상"이라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박상권 조직위원장은 "10여개 가 된 피스컵은 세계련의 인류화합의 축제다. 이번 대회는 수원이 힘겨하게 되 기쁘게 생각한다. 수원이 스포츠 매카니즘 한 차원 더 성장하고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영태권 수원시장도 "세계의 눈이 7월 수원으로 집중될 것에 기대가 크다"고 화답했다. 문창석 KBSN 부사장은 "배의매가 속한 구단들을 초청해 여타 대회와 차별화된 피스컵을 그동안 축적된 스포츠 층계 노하우로, 세계에 생생하게 전달하

겠다"고 말했다.

박규남 수원시장 박상권 조직위원장은 "올림픽 팀들이 참가했던 피스컵이 등장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영광"이라면서 "대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연의 가치도 마음에 들어 첫 계연을 받는 즉시 출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덜랜드 마카렛 배이런 구단 최고 책임자는 "세계적인 팀들이 참가했던 대회에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메시지를 보내 왔다.

수원=송윤준기자
eidy015@sportsworld.com

관련기사 3면

※ Please visit the Tongil Group homepage at www.tongilgroup.org/eng. Thank you.

